

“학교현장의 독서교육은 사실상 실패했다”

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으로 교육방식 바뀌어야...

교육당국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 절실해

반숙희 | 광주 우산중 교사

송승훈 | 광동중합고 교사·사회

허병두 | 송문고 교사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영상문화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그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독서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질의 정보를 검색할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독서교육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사 세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독서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송승훈 ——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좌담은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는 청소년 독서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반숙희 —— 저는 학교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어 학생들의 독서경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급문고 활성화에 꽤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반에 60권 정도로 문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급문고 이용실태를 조사해보니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은 평균 5권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달에 한권도 채 안 읽는다는 애기입니다.

송승훈 —— 저는 경기도에 있는 종합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 어렸을 때 책 읽는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강화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서 독서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허병두 —— 먼저 우리 사회가 독서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은 상당히 암담합니다.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독서교육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교육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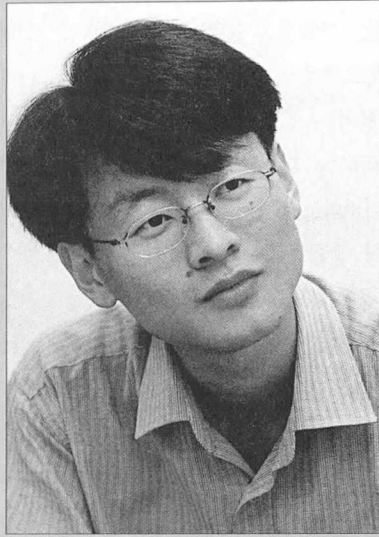
반숙희 —— 동감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모는 거의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보면, 독서교육의 목표와 평가같은 체계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 또한 문제입니다. 몇몇 뜻있는 선생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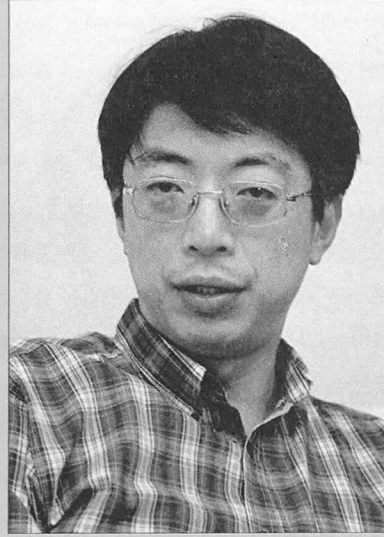
반숙희씨

“사회 전체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모세대는 거의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어본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을 겁니다. 독서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송승훈씨



허병두씨

“도서관의 활성화는 독서교육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지금까지 교실에서 진행해온 독서교육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독서교육을 하려면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아쉽습니다.

허병두 —— 독서교육은 문학적 감수성과 정보해석능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이 교양물이나 문학작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승훈 —— 두 분께서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설명해주셨지만, 이제 좀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느끼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논의해 보지요. 우선, 독서의 기본이 되는 독해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문학작품을 많이 읽고 있는데,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톨스토이 같은 작가의 작품은 그 사회의 핵심적인 고뇌나 갈등을 다뤘는데 막상 아이들은 옛날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숙희 —— 그같은 현상은 학생들이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제시대에 창작된 단편작품을 읽히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학생들은 김동인의 <감자>나 <복녀 이야기>를 아주 단순한 얘기로 축소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작품의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해주면, 학생들의 책 읽는 지평이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승훈 —— 맞는 말씀입니다만, 배경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은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책에 나온 정보에 맞춰 읽다가 글 읽는 재미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글의 주제와 형식부터 가르쳐주고 글을 읽으면 ‘난도질당한 개구리’나 다름없지요. 오히려 학생들 스스로 작품 이해를 기반으로 배경정보를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병두 —— 일정한 틀에 맞춰 책을 읽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선 작품을 느끼면 된다”는 식도 경계해야 합니다. 독자가 감정의 오류에 빠질 우

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문학이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작품분석을 ‘난도’나 ‘해부’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대로 된 분석은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읽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독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작품을 흥미롭게 읽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고민하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책을 제시해 주고,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독서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개인마다 다릅니다. 독서교육이 개인차를 고려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집단 교육을 하다 보니 획일적인 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작품을 제대로 읽을 기회마저 잃고 맙니다.

각 교과가 연계된 권장도서목록 필요

반숙희 —— 권장도서목록이 학년별·주제별·수준별로 체계화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갈매기의 꿈>은 중1부터 고1까지 모두 읽어보라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병두 ——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제시된 권장도서목록은 목록으로서의 가치보다 독서교육을 했다는 증거물 정도의 구실만 할 뿐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도서목록보다 학생들이 참여한 상호대화형의 도서목록이 필요합니다. 즉,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서목록을 스스로 고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인터넷 같은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숙희 —— 권장도서목록을 작성하는 데 학생, 학부모, 도서관, 각 교과가 연계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국어교사가 일방적으로 도서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도서관이나 학급문고에서 문학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각 교과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송승훈 —— 간혹 권장도서를 한달에 몇권씩 강제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역효과만 낼 뿐입니다. 학생들이 금세 책읽기에 질리

고 합니다. 권장도서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책읽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서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독후(讀後)활동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지요.

반숙희 ——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독후활동은 독후감 쓰기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원고지에 쓰는 독후감은 문제가 많아요.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기 싫어 책을 읽지 않을 정도니까요. 중요한 건 책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독후감은 형식적인 제출용으로 쓰이고,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고지에 쓰는 독후감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가로막지요. 저는 독후활동으로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확인·비교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모든 토의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단계에서는 책을 읽고 토론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책읽는 관점이 선 다음에 개인적으로 독서하고, 독후감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병두 —— 학교에서 독후감 쓰기를 너무 일찍 시작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독후감 쓰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일찍부터 지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책읽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독서를 의미 있는 행위로 느끼는 것입니다.

송승훈 —— 최근엔 토의·연극·게임·퀴즈 등 다양한 독후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숙희 —— 일단 원고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으로 독후활동을 펼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하는 독후활동을 무조건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상황과 수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합니다.

송승훈 —— 다양한 독후활동 자체가 아이들에게 활기를 주고, 지루함을 덜어준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활동에는 서로 다른 교육적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컨대 그림 그리기로 독후활동을 지도한다면, 각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냥 이런 것을 해봐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는 독서교육의 전제조건

반숙희 —— 독서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내 240개 학교 중 사서가 있는 학교는 다섯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어교사가 사서역할을 대신하고 있지요. 이래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광주시내 20개 학교 선생님이 교육부에 사서 배치, 도서관 전산화, 장서구입비 확충 등을 요구했다는군요. 예산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독서교육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허병두 —— 공감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사회 발전에 맞춰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주도해야 하

는 기관인데,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서 부족과 관리인력 부재가 학교교육의 가장 핵심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막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반숙희 —— 도서관을 상시로 열기 위해서는 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가운데 3%를 장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허병두 —— 도서관의 활성화는 독서교육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지금까지 교실에서 진행해온 독서교육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독서교육을 하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학교 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 편안함과 유익함,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학교 도서관은 그 자체가 독서교육의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와 문화가 집중되는, 새로운 대안교육 환경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송승훈 ——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끝으로 좌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우선 교사들이 좀더 힘을 내 독서교육 진흥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김정은 기자

코스닥에 「다음」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상한가 다름이 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디자인이 리드합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한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는 노하우,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t.net, darumman@hotmail.com

출판디자인의 모든것 북디자인(단행본·학습지·잡지·사내외보), 광고, 홍보물(카탈로그·브로슈어·패키지·P.O.P·포스터·캘린더), 일러스트